

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/9/11

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여론조사

올해 6월 27일 국회에서 ‘전두환 추징법’이 통과됐고 석 달 만인 어제 9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,700여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, 반란수괴, 뇌물 혐의로 무기징역에 추징금 2,205억 원을 선고 받은 지 16년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. 앞서 9월 4일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한 바 있습니다.

한국갤럽이 우리 국민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봤는지, 7월부터 진행 중이던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알아봤습니다.

조사 개요

1. 조사기간: 2013년 9월 9~10일(2일간)
2. 표본추출: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
3. 응답방식: 전화조사원 인터뷰
(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)
4. 조사대상: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604명
5. 표본오차: $\pm 4.0\%$ 포인트(95% 신뢰수준)
6. 응답률: 16%(총 통화 3,732명 중 604명 응답 완료)
7. 의뢰처: 한국갤럽 자체조사

주요 결과

- 전두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 ‘가능할 것으로 봤다’ 56% > ‘불가능할 것으로 봤다’ 35%
- 추징금 완납해도 ‘전두환 은닉 재산 수사 계속해야 한다’ 68% > ‘그만둬야 한다’ 25%

전두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 '가능할 것으로 봤다' 56% > '불가능할 것으로 봤다' 35%

한국갤럽이 9월 9~10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4명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는지 물은 결과 '가능할 것으로 봤다' 56%, '불가능할 것으로 봤다' 35%였으며, 9%는 의견을 유보했다.

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는 의견이 많은 데는 수사 진행 과정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진 점, 검찰이 고강도 수사가 이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편이어서 이번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는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.

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는 의견은 고연령일수록 늘어 50대 이상에서 70%에 달한 반면, 20대와 30대는 가능/불가능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.

새누리당 지지자(269명)의 65%는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민주당 지지자(114명) 중에서는 '가능할 것' 47%와 '불가능할 것' 44%로 양분됐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에서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.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(205명)에서는 '가능할 것으로 봤다'가 52%로 '불가능할 것으로 봤다'(37%)보다 많았다.

▶ 전두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 가능성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(명)	가능할 것으로 봤다	불가능할 것으로 봤다	모름/ 응답거절
전체		604	56	35	9
성별	남성	299	54	37	9
	여성	305	59	33	9
연령별	19~29세	108	46	<u>48</u>	6
	30대	121	46	<u>49</u>	5
	40대	131	51	43	6
	50대	117	<u>71</u>	20	9
	60세 이상	126	<u>67</u>	16	16
지지 정당별	새누리당	269	<u>65</u>	28	7
	민주당	114	47	<u>44</u>	9
	지지정당 없음	205	52	37	11

질문) 이번 주 중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하는데요,
귀하께서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셨습니까,
불가능할 것으로 보셨습니까?

추징금 완납해도 '은닉 재산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' 68% > '그만둬도 된다' 25%

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면 진행 중이던 은닉 재산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묻은 결과, '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'는 68%에 달했고 '그만둬도 된다'는 25%에 그쳐 추징금 완납을 수사 중단의 이유로 보지 않는 국민이 더 많았다. 7%는 의견을 유보했다.

전 연령대에 걸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특히 40대 이하에서는 열 명 중 여덟 명이 계속 수사하기를 바랐다.

새누리당 지지자(269명) 중에서는 '수사 계속' 55%, '수사 중단' 39%로 수사 중단 의견도 적지 않았으나, 민주당 지지자(114명)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(205명)에서는 '수사 계속' 의견이 80%에 육박했다.

▶ 전두환 은닉 재산 수사에 대한 의견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(명)	수사를 그만둬도 된다	수사는 계속해야 한다	모름/ 응답거절
전체		604	25	68	7
성별	남성	299	24	71	5
	여성	305	26	65	9
연령별	19~29세	108	17	<u>77</u>	7
	30대	121	20	<u>75</u>	5
	40대	131	18	<u>80</u>	3
	50대	117	<u>34</u>	58	8
	60세 이상	126	<u>37</u>	50	13
지지 정당별	새누리당	269	<u>39</u>	55	6
	민주당	114	17	<u>76</u>	7
	지지정당 없음	205	14	<u>77</u>	9

질문)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.
전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면 검찰 수사를 그만둬도 된다고 보십니까,
이와는 별도로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보십니까?